

사회운동과 정당정치: 볼리비아 MAS 사례를 중심으로*

이상현**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 I. 서론
- II. 이론적 검토: Tool-kit 접근법
- III. MAS의 형성과 발전: 역사적 고찰
- IV. 볼리비아 사회운동과 MAS의 발전
 - IV.1. 1985년 경제위기, 광산 노동자 그리고 코카 재배 농민
 - IV.2. 코카 재배 농민, 원주민 그리고 도시빈민 운동
 - IV.3. MAS, 사회운동 그리고 Tool-kit
- V. 결론

I. 서론

2005년 12월 18일 사회주의운동당(Movimiento al Socialismo-Instrumento Por la Soberanía de los Pueblos, 이하 MAS)¹⁾의 대통령 후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62-A00003).

** Sang-Hyun Yi(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shyi@pufs.ac.kr), “Social Movements and Political Party: the Case of MAS(Movimiento al Socialismo) of Bolivia”.

1)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볼리비아 정치정당 MAS는 MAS-IPSP(Movimiento al Socialismo-Instrumento Por la Soberanía de los Pueblos)를 의미한다. 본

보로 출마한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는 볼리비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부통령 후보 알바로 가르시아(Álvaro García Linera)를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원주민 출신의 코카 재배 농민운동 지도자 모랄레스는 1차 직접투표에서 53.7%를 득표하며 과반수를 획득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결국 28.6% 득표에 그치며 2위를 기록한 우파성향의 민족민주행동당(Acción Democrática Nacionalista, 이하 ADN) 후보 호르헤 키로가(Jorge Quiroga)는 패배를 시인하였고, 모랄레스는 2차로 실시될 의회투표와 상관없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한편 같은 날 치러진 의회선거에서도 MAS의 약진은 두드러졌다. MAS는 27명을 선출하는 상원선거에서는 12석을 그리고 130명을 선출하는 하원선거에서 72석을 당선시켜 상하원에서 각각 제1당의 지위와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선거 이듬해인 2006년 1월 22일 5년 임기의 대통령에 취임한 모랄레스의 집권과 더불어 의회 다수당의 지위까지 확보한 MAS의 성공은 볼리비아 역사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모랄레스와 MAS의 승리는 볼리비아에서 1980년대 이후 지속되었던 보수정당 중심의 연정정치가 종식되었음을 뜻한다. 즉 1985년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기조에 동의하는 기존의 3당(MNR-MIR-ADN) 중심의 체제에 대하여 볼리비아 국민은 명확한 반대의 뜻을 표명한 것이다(Sánchez 2008, 323). 특히 1952년 볼리비아 혁명 이후 반세기 동안 볼리비아 정치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온 민족주의혁명운동당(Movimiento Nacionalista Revolucionario, 이하 MNR)은 하원에서 7석 그리고 상원에서 단 1석만을 획득하는데 그치며 급격히 몰락하였다.

‘원주민에 기반을 둔(indigenous-based) 정당’(Van Cott 2005)으로 평가받는 MAS와 ‘180년 볼리비아 역사상 최초의 원주민 행정부’(New York Times, 2005.12.19)의 수반이 된 모랄레스의 등장은 최근 들어 의미가 커지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알리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Postero 2010). 즉 식민시대 이래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연구에서는 MAS와 MAS-IPSP를 구분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칭으로 MAS를 사용하고 있다.

소외되었던 원주민이 볼리비아 정치의 중요한 결정세력이 되었음을 주장한다(Cusicanqui 2004).

한편 MAS와 모랄레스의 집권은 사회운동이 성공적으로 정치정당화 하는 중요한 사례를 제공해주고 있다. 즉 원주민 운동, 코카 재배 농민을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 엘알토 주민을 중심으로 한 도시빈민 운동 그리고 광업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 세력이 하나의 정치정당을 이루어 집권에 성공한 사례인 MAS는 어떤 이익단체 또는 사회운동세력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전술을 구사하여 정치에 참여할 때 성공적인 정치세력화가 가능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를 위한 다음의 질문을 제기한다. ‘MAS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어떤 조건에서 사회운동은 정치정당을 결성하고 어떤 조건에서 성공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통하여 MAS와 모랄레스가 어떻게 정치세력화에 성공하였는가를 밝히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 즉 사회운동의 집합체이자 정치정당으로서의 MAS는 어떻게 성공적인 정치세력화를 이루어 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인 제2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를 실시할 것이다. 이론적 논의는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 정치세력화에 대한 기존 논의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본 연구의 주장을 증명할 이론적 접근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Tool-kit 접근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제3장에서는 MAS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실시할 것이다. 특히 1995년 지방선거부터 2005년 MAS의 집권까지의 볼리비아 사회운동 세력의 정치참여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MAS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원주민 운동, 코카 재배 농민 운동, 도시 빈민 운동, 노동자 운동 등 볼리비아의 다양한 사회운동세력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치정당 MAS의 조직과 지지기반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근거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결론에서는 Tool-kit 접근법이 볼리비아 사회운동의 성공적 정치세력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II. 이론적 검토: Tool-kit 접근법

본 연구를 위한 기존 문헌 중 Van Cott(2005)의 연구가 가장 주목을 끈다. Van Cott는 19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원주민 중심의 종족정당(ethnic parties)에 관한 심도 깊은 비교연구를 수행한 그의 저서 *From Movements to Parties in Latin America: the Evolution of Ethnic Parties*에서 정치체도와 정당체제 내의 권력구성형태가 종족정당의 형성과 성공을 가능할 수 있는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즉 Van Cott는 지방분권화, 지지정당에 대한 투표 접근권 그리고 소수인종을 위한 의석할당제와 같은 제도적 요인과 더불어 정치세력의 진출입이 용이하여 변화가능성이 높은 개방적인 정당체제 하에서 종족정당의 형성과 성공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한편 Van Cott는 이러한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정치행위자의 특정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적이고 전략적인 선택과 특정 사회 또는 정치운동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 또한 종족정당의 형성과 성공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Van Cott는 원주민 운동 정치세력화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볼리비아의 경우, 관대한 제도적 변화, 1989년 이후 좌파 정당의 몰락 그리고 촘촘하게 연결된 관련 조직들을 동원할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원주민 지도자의 능력이 결합되어 마침내 원주민이 제도권 정치의 주요 참여자로 성장하였다고 결론짓고 있다(Van Cott 2005, 50). 하지만 원주민 정당의 성공요인을 초점을 맞춘 Van Cott의 연구에서 본 연구의 질문을 위한 답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MAS의 성공을 원주민 운동의 정치세력화로 등치시키고 있는 Van Cott의 연구는 MAS의 조직형성과 성공적 정치세력화에 영향을 끼친 원주민 운동 이외의 다양한 사회운동 세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또한 성공의 구조적인 조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과연

이러한 구조적인 조건이 어떻게 MAS의 성공으로 이어졌는가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결국 Van Cott의 연구는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를 결정짓는 조건은 다양한 조건들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MAS 안의 다양한 세력들이 어떻게 “원주민 정당의 가치”에 동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Van Cott가 제시한 구조적인 조건들이 어떻게 MAS의 성공으로 이어졌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조와 개인을 연결할 수 있는 중범위(Meso Level)의 이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운동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하는 이론틀인 사회운동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Van Cott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이 MAS의 성공을 설명함에 있어서 우호적이었던 구조적 조건을 꼽고 있다(Van Cott 2005). 하지만 우호적인 구조적 조건이 곧 MAS의 성공을 결정짓는다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특히 비슷한 구조적인 조건 속에서도 라틴아메리카에서 MAS가 유일하게 원주민 정당으로서 정치세력화에 성공하였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호적인 조건을 조직의 성공으로 이끄는 연결고리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든다.

구조적 조건과 조직의 성공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중범위 이론에 대한 갈증은 사회운동론을 통하여 해소해 볼 수 있다. 개인들이 집단을 이루고 다시 이 집단이 다양한 구조적 모순 속에서 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분석하는 사회운동론은 태생적으로 중범위 이론에 가깝다. 이러한 중범위 이론의 주요성은 사회운동조직에서 쉽게 미시와 거시가 상호침투하고 작용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Staggenborg 2002, 124). 따라서 특정 구조적 조건 하에서 다양한 세력이 공존하는 MAS가 과연 어떻게 성공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논문을 위해 사회운동론이라는 이론틀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물론 정당을 연구함에 있어서 사회운동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을 수 있다. 특히 제도권 정치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정당과 제도권 밖에서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운동조직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MAS 연구에 있어서 MAS가 정치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론을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MAS가 갖고 있는 독특한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MAS는 볼리비아 사회의 변혁을 제도권 밖에서 요구하던 다양한 사회운동조직들의 총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MAS를 결성하면서 제도권 내의 정당정치를 실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본질적으로 기존 볼리비아의 사회질서를 개혁해야한다는 의지를 지닌 세력들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MAS는 볼리비아의 기성정당들과는 달리 사회운동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며 기존 정치권으로의 편입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Albro 2005, 442). 이에 MAS 형성 이후에도 이들은 볼리비아의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사회운동조직의 성격을 유지하였다.

다양한 사회운동론 중 본 논문은 특정 사회운동조직의 성공의 이유를 사회운동조직의 효과적인 Tool-kit 활용에서 찾는 Tool-kit 접근법을 활용하고자 한다.²⁾ Tool-kit 접근법은 문화를 상징과 서사, 관습과 세계관 등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Tool-kit, 즉 도구함이라고 상정한다(Swindler 1986, 273). 사람들은 문화라는 도구함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를 선택하여 활용하며 이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문화의 요소로는 서로 다른 상징, 서사, 세계관 등이 있다. 문화를 Tool-kit으로 보는 이러한 시각은 사회운동조직의 행태를 분석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이 이론적 접근에 따르면, 사회운동조직들은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문화 속에 있는 다양한 세계관, 상징, 서사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2) Tool-kit 접근법을 활용한 최근의 연구로는 박윤주(2010)의 『G20와 중견국가의 역할 연구: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박윤주는 이 연구에서 사회운동론의 Tool-kit 접근법을 활용하여 중견국가로 규정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중견국과 강대국의 결합체인 G20에서 성공적으로 행동하는가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박윤주는 국내정치 아젠다의 Tool-kit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박윤주는 아르헨티나가 국내정치 아젠다라는 Tool-kit에 소유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국유화, 노동정책, IMF 개혁과 같은 다양한 도구들 중에서 노동정책과 IMF 개혁이라는 두 아젠다를 국제제도 안의 잠재적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도구로 선택하고 집중하여 성공적으로 관철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Swindler 1986, 284).

MAS의 성공을 분석함에 있어서 Tool-kit 접근법은 매우 유용하다. 특히 다양한 사회운동조직의 결합으로 생겨난 MAS의 경우, 노동, 농민, 원주민 권리, 빈민들의 인권 등 다양한 이슈들을 강조하는 상징, 서사, 세계관들을 풍부하게 소유한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Tool-kit을 소유했다는 것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커졌음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MAS의 성공적인 정치 세력화가 다양한 사회운동세력의 협력체로 출범한 MAS의 형성단계에서부터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즉 여러 사회운동세력들이 제시하는 서로 다른 상징, 서사, 세계관들이 MAS가 선택할 수 있는 도구(tool)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아울러 MAS는 이러한 다양한 도구들 중 사회구조적인 조건에 들어맞는 효과적인 도구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MAS 안에 존재하는 여러 사회변혁의 요구 중 원주민의 인권이라는 당시 사회구조 속에서 유리한 이슈를 강조함으로써 MAS 전반의 정치세력화를 효과적으로 추동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MAS의 형성 및 발전단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다.

III. MAS의 형성과 발전: 역사적 고찰

앞서도 언급했듯이, 정치정당으로서의 MAS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이해는 오랜 시간에 걸쳐 볼리비아 역사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한 다양한 사회운동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이에 앞서 우선 본 장에서는 선거도구로서의 MAS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MAS의 탄생은 1979년 결성되어 원주민 운동과 농민운동의 정치세력화에 기여한 볼리비아농업노동자총연맹(Confederación Sindical Única de Trabajadores Campesinos de Bolivia, 이하 CSUTCB)이 1994년 12월 지도자 총회에서 1995년 12월에 실시될 지방선거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치조직

원주민주권회의(Asamblea por la Soberanía de los Pueblos, 이하 ASP)의 결성을 결의하며 시작된다. CSUTCB 지도자뿐만 아니라 저지대 원주민 농민 조직인 동부볼리비아원주민총연맹(Confederación Indígena del Oriente Boliviana, 이하 CIDOB)과 저지대 이주민 조직인 볼리비아이주민총연맹(Confederación Sindical de Colonos Bolivianos, 이하 CSCB) 등 주요 원주민 농민 조직이 참가하여 결의한 ASP의 결성은 원주민 및 농민 운동 내부에서 최초로 결성한 정치정당이라는 의미가 있다(Van Cott 2005, 70-71).

알레호 벨리스(Alejo Véliz)와 에보 모랄레스를 지도부로 한 ASP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당등록허가를 받는데 실패하고 1997년 의회선거에 연합좌파당(Izquierda Unida, 이하 IU) 후보로 참여한다. 선거결과 에보 모랄레스를 비롯한 4명의 ASP 후보는 하원의원에 당선되어 첫 전국적 정치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1999년 의회선거 이후 벨리스와 모랄레스를 양측으로 ASP는 분열되고 만다. ASP로부터 축출된 모랄레스는 ASP와 유사한 정치참여체인 원주민주권기구(Instrumento Por la Soberanía de los Pueblos, 이하 IPSP)를 결성한다. 한편 1999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정당등록에 실패한 IPSP는 교육지책으로 기존 정당의 하나인 사회주의운동당(Movimiento al Socialismo)의 정당등록을 빌려서 선거에 참여한다. 훗날의 집권당인 MAS-IPSP는 이렇게 탄생하였다. 하지만 MAS와의 연합은 CSUTCB 지도자 펠리페 키스페(Felipe Quispe)와 IPSP가 정치적으로 결별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키스페는 역사적으로 파시스트 분파의 하나인 MAS-Unzaguista는 원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는 이름이라고 주장하며 IPSP를 탈퇴하였다. 이후 키스페는 급진적인 원주민 정당인 파차쿠티원주민운동(Movimiento Indígena Pachakuti, 이하 MIP)을 창당하여 독자적인 정치행보에 주력하였다(Monasterios et al. 2007, 79).

〈표 1〉 MAS와 주변 정당의 선거결과, 1995-2006

선거	MAS/IPSP	IU/ASP	MIP
1995 지방선거	-	3% 득표 10 시장 54 시의회의원 6 도의회의원	-
1997 총선	-	3.7% 득표 4 하원의원	-
1999 지방선거	3.27% 득표 10 시장 79 시의회의원	1.12% 득표 4 시장 23 시의회의원	-
2002 총선	Evo Morales 20.9% 득표 (1차) (1차 2위, 2차 낙선) 8/27 상원의원 27/130 하원의원	-	Felipe Quispe 6.1% 득표 6 하원의원
2005 총선	Evo Morales 53.7% 득표 (당선) 12/27 상원의원 72/130 하원의원	-	Felipe Quispe 2.2% 득표
2009 총선	Evo Morales 64.22% 득표 (당선) 26/36 상원의원 88/130 하원의원	-	-

출처: CNE(Corte Nacional Electoral)

1999년 첫 번째로 참여한 선거에서 전국득표율 3.3%를 획득한 MAS-IPSP는 특히 코차밤바주에서 39%를 획득하며 거점을 마련한다. 1999년 지방선거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MAS가 정치정당으로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은 2002년의 대통령과 의회 선거에서 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더욱 격렬해진 코카 재배 농민들의 저항과 2000년의 코차밤바 물전쟁 그리

고 2002년 모랄레스의 의회퇴출은 MAS-IPSP의 조직역량 확대와 더불어 모랄레스와 MAS가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2002년 치러진 대선에서 20% 이상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한 모랄레스는 비록 당선에는 실패하였지만 대안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동시에 실시된 의회선거에서 MAS는 상하원에서 각각 8석과 27석을 확보하며 제1야당의 지위를 구축하였다.

2002년 총선 이후 볼리비아 정국은 소위 가스 전쟁이라 불리는 천연가스 산업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의 소용돌이로 빠져 들었다. 2003년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이용하여 볼리비아 남부로부터 칠레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천연가스를 수출하려던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의 계획은 MAS를 필두로 한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한다. 결국 2003년 10월 17일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은 사임과 동시에 망명길에 오른다. 공식이 된 대통령에 취임한 부통령 메사(Carlos Mesa)는 국민투표를 통하여 정국혼란을 수습하려 한다. 그러나 2005년 6월 국민투표 끝에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탄화수소 법은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못하였다. 전면적 국유화를 주장하는 MAS를 중심으로 한 야당세력은 다시금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였고, 결국 메사대통령마저 사임한다(이상현 2007b). 결국 2005년 12월 18일 앞당겨 실시된 총선에서 MAS는 압도적인 득표로 대통령직과 하원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ASP를 결성하여 선거에 참여하기 시작한지 불과 10년 만에 볼리비아 사회운동 세력은 정치권력을 획득한 것이다.

IV. 볼리비아 사회운동과 MAS의 발전

본 장에서는 볼리비아 사회운동과 정치정당 MAS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MAS 조직과 지지기반을 이루고 있는 원주민 운동, 코카 재배 농민 운동, 도시 빈민 운동, 노동자 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 세력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MAS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V.1. 1985 경제위기, 광산 노동자 그리고 코카 재배 농민

정치정당 MAS의 기원은 가깝게는 1985년의 볼리비아 경제위기시기 그리고 멀게는 1952년 볼리비아 혁명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선 “토지를 원주민에게, 광산을 국가에게”라는 슬로건으로 집약된 1952년 볼리비아 혁명은 식민시대 이래로 소외되었던 원주민, 농민 그리고 노동자들이 보통 선거권의 확립, 토지개혁 그리고 광산국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최소한의 정치적·경제적 권리를 획득한 사건이다(Grindle and Domingo 2003; Klein 2003). 또한 볼리비아 혁명은 혁명의 과정에서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한 고지대 농민과 노동자의 광범위한 정치참여와 이에 따른 조직화를 촉발시켰다. 따라서 볼리비아 혁명을 계기로 농민과 노동자 세력은 볼리비아 전국노동조합연맹(Central Obrera Boliviana, 이하 COB) 중심의 조직화를 거쳐 제도권 정치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MAS 조직화의 근원이 되었다.

한편 1952년 혁명 이후 시도된 볼리비아의 국가사회주의적 성장모델은 1980년대의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바탕으로 한 시장 주도적 성장모델로 전환한다. 또한 이러한 성장모델의 전환은 정치 및 사회세력의 재편을 의미하였다. 오랜 군부독재 끝에 집권한 중도좌파 민간정부 실레스 수아소(Hernán Siles Suazo, 1982-1985)정권의 실정과 볼리비아 경제의 만성적 결함이 중첩되어 찾아온 볼리비아의 1985년 경제위기는 물가상승, 성장저하, 실업률 상승, 무역적자 및 재정적자 확대 등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 특히 20.000%를 넘나드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은 경제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결국 초기에 실시된 선거로 대통령직에 복귀한 1952년 볼리비아 혁명의 주역 파스 에스텐소로(Victor Paz Estenssoro)는 급진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패키지인 신경제정책(NPE)을 실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안정화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주도의 기존 경제체제를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주도적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 NPE는 단일 변동

환율제의 도입, 수입쿼터제 중지, 단일 수입관세 도입, 정부 고용 삭감, 공공 부문 임금 동결, 1년간 정부투자 중지, 그리고 소비자 가격 자유화 등의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NPE는 당시 27,000명을 고용하던 최대 국영기업의 하나이자 볼리비아 경제의 상징인 볼리비아국영광업공사(Corporación Nacional Minera de Bolivia, 이하 COMIBOL)의 구조조정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COMIBOL 행정조직의 분화와 경영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었다(이상현 2007a, 90-91).

그러나 NPE가 발표된지 두 달 만인 1985년 10월 볼리비아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산업이자 수출품의 하나인 주석 산업이 붕괴되는 또 다른 시련을 겪게 되었다. 국제주석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창설된 국제 주석 생산국 및 소비국 연합인 국제주석기구(International Tin Council)가 주석 소비 부진으로 인하여 누적된 재고를 건디지 못하고 파산을 선언한 것이다(Crabtree et al. 1987). 국제주석가격은 하루아침에 파운드 당 미화 5.4달러에서 2.5달러로 폭락했고 주석 생산과 수출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낮은 기술과 부진한 투자 그리고 높은 생산 단가로 인하여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던 COMIBOL은 결국 거의 모든 생산을 중단하고 NPE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효율성의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된 COMIBOL의 1단계 구조조정(1985-1989)은 적자광산 폐쇄와 대규모 해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경제성을 지닌 몇몇 소수의 광산을 제외한 많은 광산들이 폐쇄되었으며 광산 노동자들은 재배치라는 명목 하에 해고되었다. 1985년 27,000명에 달하던 COMIBOL의 노동자는 1987년에 이르러 7,000명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약간의 수당을 받고 광산을 떠난 노동자들은 도시빈민이 되거나 차파레(Chapare) 지역과 같은 열대지역에서 코카 재배 농민이 되었다(이상현 2007a).

전통적으로 볼리비아 노동운동의 가장 핵심세력으로 다양한 조직경험을 지닌 COMIBOL 해고 노동자의 전국적 재배치는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차파레 지역을 중심으로 코카 재배 농민이 된 해고 광산 노동자들은 코카 재배 농민들의 조합운동에 큰 기여를 하였다. 풍부한 노동

조합 및 정치경험을 지닌 다수의 해고 광산 노동자들은 조직화된 코카 재배 농민으로 탈바꿈하여 정부의 코카 박멸 정책에 대한 조직적이고 급진적인 투쟁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결국 MAS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Albro 2005; 이상현 2007a).

IV.2. 코카 재배 농민, 원주민 그리고 도시빈민 운동

앞서 살펴 본 주석광산의 폐쇄와 광산 노동자 대량해고에 따른 코카 재배 농민으로의 전환이 MAS의 형성과 발전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요인이라면 1980년대 이후 코카 재배 농민의 조직화와 전투적 저항은 MAS의 정치적 성공을 이끈 직접적인 요인이다. 차파레의 광산 노동자 재배치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코카 재배 농민의 조직화는 미국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 코카 박멸 정책에 대한 직접적 저항으로 이어졌다. 특히 우고 반세르 정권(1997-2001) 하에서 실시된 강력한 코카 박멸 정책인 ‘존엄성 정책’(Plan Dignidad)은 코카 재배 농민의 거센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최대 100,000에이커에 달하던 코카 재배 면적의 약 70%에 달하는 70,000에이커의 코카를 박멸한 ‘존엄성 정책’은 볼리비아 경제에 연간 약 5억 달러의 손해를 끼쳤는데, 특히 코차밤바 지역의 경제를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Kohl and Farthing 2001, 36)³⁾. 결국 이러한 코카 박멸 정책으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은 코카 재배 농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하였는데, 33명의 농민이 죽었고 1,000명 이상이 다치거나 구금되었다(Ledebur 2005, 144-145).

코카 재배 농민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은 꾸준한 조직화로 이어졌다. 1988년에 이미 다섯 개의 코차밤바 코카 재배 농민 연맹이 위원회(Comité Coordinador)를 결성하였으며, 1990년에 이르면 160개의 지역조합과 30개의 하부연맹 그리고 다섯 개의 상부연맹에 소속된 오만여명의 코카 재배 농민이 차파레에서 생산 활동을 하게 되었다(Van Cott 2005, 58, 재인용)⁴⁾.

3) Kohl and Farthing(2001, 36)의 조사에 따르면, 2000-2001년 코차밤바 경제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예를 들어 코차밤바의 주택가격은 급격히 하락하여 일부 지역의 경우 50-60%가 하락하였으며, 매매 자체가 중단되었다.

한편 모랄레스는 1988년부터 사무총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차파레 지역의 코카 재배 농민 조직을 이끌었다. 차파레 코카 재배 농민 지도자라는 강력한 조직기반은 모랄레스가 중앙정치에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음은 물론 코카 재배 농민 조직이 MAS의 급진적인 핵심 전위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유가 되었다(Albro 2005, 438)⁵⁾. 결국 현재 MAS가 지닌 반미적 성향에 기반을 둔 반신자유주의와 코카우호라는 정책적 방향성은 오랜 기간에 걸친 코카 재배 농민조직들의 조직화와 저항이 MAS 조직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코카 재배 농민의 조직적 전투화는 1970년대 말부터 농민조직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한 원주민 운동과 결합되어 그 파괴력이 증폭되었다. 특히 1979년에 결성된 CSUTCB는 정치세력화 과정에서 농민 운동과 원주민 운동 그리고 노동자 운동을 결합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최대의 원주민 조직으로서 모든 주에 산하 조직을 가지고 있는 CSUTCB는 저지대 원주민 조직과 이주민 조직을 망라하여 지역별로 주별로 촘촘하게 농민들을 조직하고 있다(Van Cott 2005, 59). CSUTCB는 광산 노동조합이 몰락한 후 지도부의 공백이 생긴 COB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노동자 중심의 계급적 이슈에 몰두하던 COB의 행동방향을 원주민 이슈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역할을 수행하였다(Fornillo 2009). 결국 CSUTCB는 2000년대 이후의 정권반대 투쟁을 주도하였다.

한편 MAS의 조직기반에서 간과할 수 없는 세력은 도시빈민 특히 엘알토 주민이다. 라파스의 외곽도시인 엘알토는 2010년 현재 인구 100만 명에 육박하며 정치적으로 가장 잘 조직된 도시이자 MAS의 핵심거점이다⁶⁾. 1950

-
- 4) Albro(2005, 438)에 따르면 2005년에 차파레 지역에는 약 35,000명의 코카 재배 농민이 여섯 개의 상부연맹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 5) 코카 재배 농민 조직에 기반을 둔 MAS에 대한 지지는 차파레 지역에서 절대적이었다. 예를 들어, 1999년 지방 선거에서 MAS는 차파레 지역 투표의 86%를 획득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기록하였다.
 - 6) 엘알토 주민의 조직화와 관련해서는 Lazar(2006; 2008)와 Albó(2007)를 참조할 것. 이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엘알토 주민들은 어떤 형태의 조직에 가입이 되어 있다. 특히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조직은 이웃들 간의 지역자치 조직들인데,

년에 인구 11,000명에 불과하여 라파스의 한 구역에 지나지 않았던 엘알토는 1950년대부터 시작된 도시이주로 팽창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경제위기 이후 급격한 팽창을 경험하였다. 특히 차파레 지역처럼, 1980년대 후반부의 해고된 광산노동자의 대량 유입은 엘알토의 양적 팽창만이 아니라 정치문화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Arbona and Kohl 2006, 258). 즉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좌절의 배경 속에서 전통적인 지역기반 조직, 노동조합주의 그리고 원주민주의가 융합된 독특한 엘알토의 정치문화는 다양한 사회운동세력의 자양분이 되었으며 MAS의 강력한 지지기반으로 성장하였다. 엘알토의 이러한 정치적 역량이 도드라지게 드러난 사건은 2003년 10월 소위 ‘가스 전쟁’이다.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여 산체스 데 로사다 정권을 물리적으로 고립시킨 2003년 10월 시위에서 당시 65만 명의 엘알토 주민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시위에 참여하는 놀라운 동원력을 보여주었다⁸⁾.

IV.3. MAS, 사회운동 그리고 Tool-kit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MAS는 원주민 운동, 농민 운동, 노동 운동, 도시 빈민 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이 오랜 시간을 두고 복합적으로 발전한 결과이다. 따라서 MAS는 정치정당이기보다는 사회운동조직들의 정치적 도구(political instrument)를 표방한다(Harnecker and Fuentes 2008, 8). MAS의 이러한 사회운동 기반은 MAS가 현실정치에서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기여

600개에 이르는 이러한 알토의 지역자치 조직들은 지역자치회의연맹(Federación de Juntas Vecinales de El Alto)으로 조직화되어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 7) 2001년 실시하고 2003년 발행된 통계청(Inst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s, 이하 INE) 센서스에 따르면, 엘알토 주민의 74.25%가 본인을 아이마라로 규정하였다. 또한 6%는 스스로를 케추아로 규정하였으며, 19%는 어떤 원주민 그룹에도 속해있지 않다고 밝혔다. 엘알토는 대부분의 주민이 원주민으로 이루어진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독특한 도시이다. 참고로 라파스의 경우, 50%가 아이마라로, 그리고 10%가 케추아로 본인을 규정하였다(Lazar 2006, 186; Albó 2007, 34).
- 8) Lazar(2006)에 따르면, 2003년 가스전쟁에서 보인 엘알토 주민의 참여와 동원은 노동조합, 원주민 및 농민운동 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위원회와 같이 고유한 정체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정치 사회 조직들의 꾸준한 조직화의 결과이다.

를 하였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MAS는 단순히 단일이슈를 중심으로 농촌의 한 분야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표출된 2000년대 볼리비아의 반정부 시위에서 어떤 명백한 정체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Albro(2005)의 평가는 중요한 이론적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MAS는 다원주의적 정치를 관통하여 대변하고 있으며, 원주민이나 코카 재배 농민과 같은 태생적 기원에 해당하는 정체성의 협소함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MAS가 이러한 사회운동 중심의 다원주의적 성향을 지니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참여하고 있는 사회운동에 종속되어 있는 MAS의 조직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산토스 라미레스⁹⁾의 인터뷰에 따르면, “MAS의 구성원, 특히 지도부를 이루고 있는 전국, 지역, 지방 등의 대표자들은 MAS를 만들 때부터 각자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의 직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정치조직과 사회조직은 구조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었으며, 분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사회운동 조직과 정치기구의 조직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조직에서의 의사결정은 현장 상황을 반영한다. 전국지도부라도 참여하고 있는 사회운동 조직들의 동의가 없으면 회의소집, 지침, 회람조차도 임의로 발표할 수 없다. 결국 MAS의 조직은 사회운동의 지휘아래 있다(Harnecker and Fuentes 2008, 78).”

이러한 MAS의 다양한 사회운동세력에 기반을 둔 다원주의적 성향은 MAS 조직과 이슈선정의 유연함으로 표출되었으며, MAS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다양한 사회세력의 의사가 반영되어 선거에서는 물론 일상 정치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에 MAS 지도부의 한 명인 가르시아 리네라(Álvaro García Linera) 부통령은 MAS와 사회운동세력 간의 유기적 관계에 대하여, MAS의 창당으로 사회운동 세력은 더 이상 정치정당에게 대의의 역할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대의하는 직접 정치의 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하였다(García Linera 2006, 26).

9) MAS 지도자의 한 명으로 상원의원을 지냈으며 2008년 현재는 볼리비아국영석유회사(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이하 YPFB) 대표이다.

따라서 MAS는 오로지 원주민의 자치와 자율에만 몰두하는 기존의 원주민 운동과는 달리,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원칙보다는 이슈 주도적이고, 다른 세력과의 연대를 중시하며, 다른 사회세력의 투쟁도 효율적으로 접목시키고 활용하는 특징을 보였다(Albro 2006, 410-411). 이런 측면에서 볼 때, MAS와 모랄레스의 다원주의적 성향과 현실 정치에서의 성공은 원주민 단일 이슈에 몰두하던 다른 원주민 정치지도자 펠리페 키스페(Felpe Quispe)의 정치적 부진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 모랄레스의 오랜 정치적 라이벌로서 원주민 중심성을 특히 강조하던 키스페와 MIP는 모랄레스와 겨룬 2005년 대선에서 불과 2.2%를 득표하는데 그친다. 특히 원주민 이슈에 집중한 키스페는 MAS와 모랄레스의 다원주의적 성향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하곤 하였다. 키스페는 “에보는 원주민이 아니다. 그는 사회주의자이다. MAS는 잡탕이자 혼합물이다. 그들은 원주민 국가를 표방하지 않는다. 그들은 중산층 출신들로 영혼이 없는 좌파들이다. MAS는 마치 좌파 매춘부들이 일하는 매음굴과 같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원주민주의자이다.”(Albro 2006, 416, 재인용)라며 MAS와 모랄레스의 다원주의적 정치성향을 비판하였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정치정당보다는 다양한 사회운동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도구의 역할을 목표로 만들어진 MAS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성장한 사회운동세력들의 성장과 결합을 통하여 각 사회운동 세력이 추구하는 다양한 아젠다를 포괄하는 사회운동 결합체로 성장하였다. 또한 MAS가 포괄하는 다양한 사회운동의 아젠다는 MAS의 효율적이고 유연한 아젠다 선택을 가능케 하였다.

V. 결론

1995년 볼리비아의 농민 운동과 원주민 운동을 대표하는 CSUTCB가 1995년 12월 치러질 지방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정치조직 원주민 주권회의로부터 시작된 볼리비아 사회운동 세력의 정치세력화는 2005년 치러진 총선에

서 에보 모랄레스와 MAS가 각각 대통령 당선과 상하 양원에서 제1당의 지위를 획득하며 성공을 거두게 된다.

볼리비아 MAS의 사례는 MAS의 정치적 성공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비결로, MAS의 조직기반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사회운동세력에서 표출되는 여러 아젠다 중 정치적으로 효과적인 아젠다가 시의적절하게 선택되고 집중되어 자원이 동원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즉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사이의 코카 박멸에 대한 저항, 2000년 ‘물전쟁’으로 명명된 수자원 민영화 반대 투쟁, 2000-2001년 아이마라 원주민 봉기, 2003년 탄화수소산업 국유화 투쟁, 2005년 원주민 권리 증진 아젠다 등 MAS가 역사적으로 선택하고 추구한 다양한 아젠다는 MAS 조직기반 확대와 선거에서의 지지율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볼리비아 역사 속에서 발전한 다양한 사회운동의 결합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MAS는 노동자, 코카 재배 농민, 원주민, 도시빈민 등 MAS 조직 구성원과 지지기반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Tool-kit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Tool-kit의 다양성은 정치조건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행동선택을 가능케 하였다. MAS가 소유한 이러한 Tool-kit의 다양함은 MAS가 원주민 정체성을 대변한다는 대표적 이슈를 선점함과 동시에 코카 박멸 반대, 반민영화, 반미, 자원국유화 등 다양한 볼리비아 사회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선택하여 행동할 수 있는 근원이 되었다. 결국 이는 볼리비아 역사상 최초의 원주민 정권이자 사회운동의 성공적 정치참여 사례인 MAS의 집권을 가능케 하였다.

■ Abstract ■

A newly emerging Bolivian political party MAS (Movimiento al Socialismo) has achieved great success in 2005 general elec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factors of electoral success of MAS in recent Bolivian politics.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research are: ‘What is the factors of MAS’s success?’ and ‘Under what conditions and with which strategies social movements could evolve to a successful political party?’.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research adopts ‘Tool-kit approach’. The study shows historical formation process of MAS. Particularly, the study pays attention to the role of social movements in the evolution of MAS in 1990s and 2000s. According to the evidence provided, MAS has incorporated various social movements in its organization, such as indigenous organizations, displaced miners from COMIBOL, coca growers, and urban organizations in El Alto. Therefore, the study suggests, MAS has developed a Tool-kit which successfully deals with variety of political issues such as anti-coca eradication, indigenous rights, anti-privatization of water resource, land reform, and pro-privatization of natural gas industry. In conclusion, the study argues that MAS is not a mere indigenous party but an umbrella of various social movements, which is the core reason of electoral success of MAS in recent Bolivian politics.

Key Words: Bolivia, MAS, Social Movement, Political Party, Tool-kit Approach
/ 볼리비아, 사회주의운동당, 사회운동, 정치정당, Tool-kit 접근법

논문투고일자: 2010. 10. 11

심사완료일자: 2010. 10. 30

게재확정일자: 2010. 11. 21

■ 참고문헌 ■

- 김기현(2010),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은 종족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는가?』,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23, No. 2, pp. 203-240.
- 김은중(2008), 『권력의 식민성과 볼리비아 원주민 사회운동』,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19, No. 1, pp. 29-57.
- 박윤주(2010), 『G20와 중견국가의 역할 연구: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지역학회, Vol. 28, No. 1, pp. 293-316.
- 이상현(2007a), 『볼리비아 국영광업공사 구조조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985-2001』,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20, No. 3, pp. 85-119.
- _____ (2007b), 『볼리비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전개와 의미』,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07-10-04, 대외정책연구원.
- Albó, Xavier(2007), “El Alto: Mobilizing Block by Block,”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July/August, pp. 34-38.
- _____ (2008), “The ‘Long Memory’ of Ethnicity in Bolivia and Some Temporary Oscillations,” in John Crabtree and Laurence Whitehead(eds.), *Unresolved Tensions: Bolivia Past and Present*,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Albro, Robert(2005), “The Indigenous in the Plural in Bolivian Oppositional Politics,”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Vol. 24, No. 4, pp. 433-453.
- _____ (2006), “Bolivia’s ‘Evo Phenomenon’: from Identity to What?,” *Journal of Latin American Anthropology*, Vol. 11, No. 2, pp. 408-428.
- Arbona, Juan M. and Benjamin Kohl(2004), “City Profile La Paz-El Alto,” *Cities*, Vol. 21, No. 3, pp. 255-265.
- Crabtree, John, Gavan Duffy and Jenny Pearce(1987), *The Great Tin Crash Bolivia and World Tin Market*, London, UK: Latin American Bureau.
- Crabtree, John and Laurence Whitehead(2008), *Unresolved Tensions: Bolivia Past and Present*,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Cusicanqui, Silvia Rivera(2004), “Reclaiming the Nation,”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November/December, pp. 19-23.
- Fornillo, Bruno(2009), “Mining Proletariat, Economic Nationalization and the Current Repositioning of the ‘Central Obrera Boliviana’,” *Polis, Revista de la Universidad Bolivariana*, Vol. 8, No. 24, pp. 77-93.
- García Linera, Álvaro(2006), “El Evismo: lo nacional popular en acción,” *OSAL(Observatorio Social de América Latina)*, Año VII, No. 19, Julio.
- Grindle, Merilee S. and Pilar Domingo(2003), *Proclaiming Revolution: Bolivia*

- in Comparative Perspectives*, Cambridge, MA and London, UK: Harvard University Press.
- Hamecker, Marta and Federico Fuentes(2008), *MAS-IPSP de Bolivia: instrumento político que surge de los movimientos sociales*, Centro Internacional Miranda, Caracas, Venezuela.
- Klein, Herbert S.(2003), *A Concise History of Bolivia*,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hl, Ben and Linda Farthing(2001), "The Price of Success: Bolivia's War Against Drugs and the Poor,"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July/August.
- Lazar, Sian(2006), "El Alto, Ciudad Rebelde: Organisational Bases for Revolt,"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Vol. 25, No. 2, pp. 183-199.
- _____(2008), *El Alto, Rebel City: Self and Citizenship in Andean Bolivia*, Duke University Press.
- Ledebur, Kathryn(2005), "Bolivia," in Coletta Youngers and Eileen Rosin(eds.), *Dangerous Exports: the Impact of US International Drug Control Policy on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Latin America*, Washington DC: Washington Office on Latin America, pp. 143-184.
- Monasterios, Karin, Pablo Stefanoni and Hervé do Alto(2007), *Reinventando la nación en Bolivia: movimientos sociales, estado y postcolonialidad*, La Paz, Bolivia: CLACSO.
- Postero, Nancy(2010), "Morales's MAS Government: Building Indigenous Popular Hegemony in Bolivia,"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37, No. 3, pp. 18-34.
- Sánchez, Omar(2008), "Transformation and Decay: the de-institutionalisation of party systems in South America," *Third World Quarterly*, Vol. 29, No. 2, pp. 315-337.
- Staggenborg, Suzanne(2002), "The 'Meso' in Social Movement Research," in David S. Meyer, Nancy Whittier and Belinda Robnett(eds.), *Social Movements: Identity, Culture, and the State*,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Swidler, Ann(1986), "Culture in Action: Symbols and Strateg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15, No. 2, pp. 273-286.
- Toranzo Roca(2008), "Let the Mestizos Stand Up and Be Counted," in John Crabtree and Laurence Whitehead(eds.), *Unresolved Tensions: Bolivia Past and Present*,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Van Cott, Donna Lee(2005), *From Movements to Parties in Latin America:*

the Evolution of Ethnic Politic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Zavaleta Reyes, Diego(2008), "Oversimplifying Identities: the Debate over What Is *Indigena* and What Is Mestizo," in John Crabtree and Laurence Whitehead(eds.), *Unresolved Tensions: Bolivia Past and Present*,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